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제93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0년 11월 27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17동 6층)

- 제1주제 해롤드 버만의 법사학
 발표자 : 김 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제2주제 Morality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of 1787
 발표자 : 김성복(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석좌교수)
- 사료강독
 - 1) 18세기 전후 한·중 전통사회 과실행위의 법률책임
 발표자: 한상돈(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 근대 일본 판결 원본의 이미지
 발표자: 정종휴(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94회 정례학술발표회(겸 기초법 관련학회 제1회 공동학술대회)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1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주제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기초법 교육



• 제1세션

사회 : 김도균(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① 법철학회 : 변화된 법학교육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제일(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양천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② 법사회학회 :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의 구조-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도출-

발표자 : 이상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제2세션

사회 :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① 법과사회이론학회 : 앰허스트로 가는 길

발표자 :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토론자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② 젠더법학회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발표자 : 차선자(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해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3세션 사회 :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사회학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의 법제사 교육의
 가치와 역할
 발표자 :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조지만(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세션 사회 :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종합토론

3) 제95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3월 19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17동 517호)

- 제1주제 “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준영, 역사비평사, 2010)”의
 서평 토론
 서평 :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제2주제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와 식민지조선
 발표자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료강독 심희기, Max Kohler가 W. E. Griffis에게 보낸 편지
 (Oct. 7. 1921자)

2. 운영위원회

제4차 운영위원회(2011. 1. 21.)

참석 : 최병조(회장), 심희기(부회장), 정공식(총무이사), 김창록(섭외이사),
문준영(연구이사), 서울오(정보이사), 조지만(서기)

학술활동 계획

(1) 제95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3월 19일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 제96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5월 14일 2시

장소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제97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6월 17일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4) 제98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 2011년 9월 17일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주제 : 법사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5) 제99회 정례학술발표회 및 영산학술상 시상식

일시 : 2011년 12월 16일, 17일, 18일 중 1박 2일 2시

장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구한말 판결문을 소재로 하는 발표

3. 제3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

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에서 제 3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을 거행하였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학술상의 종류에는 우수상과 신진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수상 2명(공동 수상), 신진상 1명이 선정되었다. 제3회 수상논문 및 선정이유와 수상자,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 「물권행위 이론의 비역사성」, 『法史學研究』 제37호(2008.4.)

수상자 : 김기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수상 :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논쟁과 관련된 학설사적 고찰」,

『法史學研究』 제38호(2008.10.)

수상자 : 서울오(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정이유 : 위 두 논문은 민법상의 중요 문제 중 하나인 물권행위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제도적 존재의의를 로마법을 중심으로 현대 민법전까지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아주 모범적으로 학술적인 논쟁을 펼쳤으며, 이는 그 결론의 당, 부당을 떠나서 그 학문적 토론의 자세와 방식 자체로서 타에 모범이 되고, 향후 우리나라 학계의

보다 활발한 상호 논전과 사상 교류를 복돋고, 특히 후학들에게 학문하는 엄중함과 책임있는 자세를 예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우리 학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이들의 건설적인 논쟁을 적극 상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한국법사학회에서 학술논쟁의 모범을 제시하는 이유에서 위 두 논문을 공동수상으로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김기창 수상소감 : 물권행위 개념은 우리 민법학자들 간에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로마법 문헌들이 후대 연구자들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 물권행위 개념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논문을 적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하여 서울오 교수께서 훌륭한 반론을 제기하여 시작된 ‘대화’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연구자가 그리 많지 않은 법사학 분야에서 동료 연구자와 견해를 주고받고, 반론과 비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하여 서울오 교수의 훌륭한 연구 성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 교수의 품위있는 필치는 학술 논쟁은 이러해야 한다는 점을 제게 환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누린 ‘대가’로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서울오 교수와 공동으로 받게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이겠습니다만, 상을 받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훌륭한 동료 연구자와 흥미있는 주제에 대하여 견해를 주고 받고, 모르던 것을 그분 덕에 알게 되고 그 결과로 공동으로 수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상을 제정하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의 연구 열정과 성과는 저와 같은 후학에게 언제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상을 만드신 취지를 받들어 앞으로 법사학 연구에 더 한층 매진하겠습니다.

서울오 수상소감 : 존경하옵는 박병호 교수님께서 마련하신 기금에 기초하여 우수한 법사학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이 상을 제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으로는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이 가지는 큰 의미를 생각할 때 참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연구 성과가 뛰어나서 이 상이 저에게 수여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분발하여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질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상을 김기창 교수님과 함께 수상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성과만 가지고는 수상에 턱없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과 제가 서로 활발하게 토론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영산학술상 선정위원회가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권행위와 관련된 이 토론을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응해 주신 김 기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들어 제가 법사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세 분의 스승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학부 시절부터 시작하여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로마법과 법사학 공부를 지도하여 주신 최병조 한국법사학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독일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내내 저를 지도하여 주신 베르톨트 쿠피쉬(Berthold Kupisch)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법사학 공부의 길로 저를 이끌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문 외적인 면에서도 늘 모범을 보여주신 박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귀중한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제 연구 성과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사학 공부가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합니다만, 이 길을 함께 가고 계신 많은 동학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소중한 노력 덕택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분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시상의 영광을 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족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헌신해 온 제 처 최유리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신진상 : 「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
『古文書研究』 제33호(2008.8.)

수상자 : 박 경(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선정이유 : 조선시대 하층민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115건의 자매문기를 통해 하층민의 가족질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방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독창적인 연구성으로 평가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자매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근친이 방매할 때도 自賣라고 한 점, 소가족 공동체 단위의 의사결정과 가족운영 형태, 夫와 父가 처와 자녀에 대한 대리 거래의 권한을 지닌 점, 아들보다는 딸을 우선 방매대상으로 삼고 6세~15세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이 된 점 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자료의 특성상 고문서연구가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성을 보완하면서 고문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방법론을 심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신진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데 대해 한국법사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가족, 친족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 연구에 입문할 때부터 박병호 선생님, 정금식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의 논문을 접해왔기 때문에 한국법사학회에 대해서는 평소 애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저에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문서 연구의 길을 열어주신 박병호 선생님께서 제정하신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찬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던 제가 고문서를 접하게 되면서 역사 연구의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매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인이 자신을 노비로 팔았던 自賣를 통해 조선 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양인을 노비로 삼거나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극히 제한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흉년과 기근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餓死를 위협받는 극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에서 자매를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문기를 검토하면서 자신을 放賣하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등이 자식이나 처를 방매하는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이 당시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마무리한 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관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나 하층민의 삶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 켠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 연구자의 길을 열어주셨던 이배용 선생님을 비롯한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님들과 고문서 연구의 길을 열어주신 박병호 선생님께 항상 감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 동학들이 제가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점은 제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역사학 뿐 아니라 고문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4. 회원동정

- 1) 박병호 회원(본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은 2011년 2월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박병호회원의 답사를 발췌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古文書를 포함한 古文獻의 史料的 價値의 重要性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발굴·정리·간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본인이 法學碩士로서 고문서 정리를 自請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囑託으로 채용되어 고문서 정리를 시작한 것이 1958년 초인데, 도서관 職制에도 없는 ‘古文書整理室’이라는 업무표찰을 부치도록 강청하여 非公式的 公認部署로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서정리실이었습니다. 이윽고 1962년 6월에 5만여 매의 문서 정리를 완료하였는데, 당시에는 도서관 내부는 물론 학자들도 무관심할 뿐더러 마치 賤役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움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陰地에서의 賤役에 自矜心을 가졌습니다.

1994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에 草書史料研修過程이 신설되어 2010년까지 17년간 연인원 250여 명의 수강생에게 1년 과정의 草書古文書講義를 함과 동시에 5년간 연인원 300여 명의 고등학교 국사교사에게 ‘한국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와 연구성과’를 특강하였으나 모두 메아리 없는 虛聲에 그치고 만 듯합니다. 一言以蔽之하면 ‘虛無實’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 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15년에 이르는데 처음 2년은 파견교수로서 補職을 맡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뒤로는 2년간 外來

教授로서 院의 희망하는 教授·研究生에게 매주 3일간씩 초서고문서를 강의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오후 4시에는 본 연구원 대강당 2층 세미나실에서 韓國古文書學會를 창립하였고, 본인이 初代와 二代會長으로서 6년간 일을 맡았으니 감격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본원 韓國學大學院에 有史以來 최초의 古文獻管理學科가 창설되어 본인이 70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초빙교수로 초대되어 학과의 기초를 세우고 교육·연구에 身命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지고 弟子를 길러낸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석·박사가 고문헌의 연구·강의·정리업무의 先導의 役任을 다하고, 이들이 아니면 정확한 解讀整理를 할 수 없는 位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실로 이 학과와 동료교수·제자·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維持와 努力의 소산이라고 하겠으며, 그 덕분에 본인의 머리 한 구석에 박혀 있던 賤役意識이 말끔히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내어 傳授했습니다. 또 일언이폐지하면 ‘虛無餘’입니다.

오늘 본인에게 주신 명예문학박사의 명예는 결코 본인 개인의 명예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同學食口들과 共有하는 榮譽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代表로 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공유하는 영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은 동학 모두가 使命感을 가지고 挫折하지 말고 古文獻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현대적이라는 말, 외국 선진국의 精神·文物·學問이 이제는 우리의 先生인 시대는 지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山처럼 集積되어 있는 고문헌에 魂을 불어 넣어 價値 있는 힘을 모두 일깨워서 動力으로 만드는 일이 동학들에게 부과된 중대한 任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正體에 외국의 바람직한 文化를 接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에게 수여된 이 名譽는 賤役性을 免하게 하는 상징적인 징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志在千里하고 壯心不已라는 옛 말과 같이 20년을 되돌려 61세의 나이로 돌아가 텅 빈 머리에 充電을 하면서 斯學에 寸分이라도 공헌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2) 문준영 회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저서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10년)이 2010년 11월 10일 제4회 임종국상 학술부문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회장	최병조(서울대)
부회장	심희기(연세대)
감사	윤대성(창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정궁식(서울대), 조지만(아주대)
연구	한상돈(아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문준영(부산대)
정보	서울오(이화여대)
섭외	김창록(경북대)
편집위원회	심희기(위원장), 임대희(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홍기원(서울시립대)